

여의도 파크원 현장 토사반출 100 만^m 달성

[문성일 기자](#) | 10/19 07:31 | 조회 307



▲스카이렌 마이크 월시 부사장(왼쪽)이 파크원 현장 100 만 ^m 토사반출 달성을 기념, 7 만 9128 번째 토사 반출 트럭 운전기사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있다.

다국적 부동산 디벨로퍼인 스카이렌 그룹은 지난 16 일 서울 여의도 '파크원'(Parc1) 공사현장에서 폴 로저스 회장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사반출 100 만^m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9 일 밝혔다.

이번 행사에서는 기념 컷팅식과 함께 100 만^m 토사반출 달성을 기록한 7 만 9128 번째 반출 트럭기사에게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했다. 폴 로저스 회장은 "파크원 부지 면적은 축구장 5 개를 합친 것으로 서울에서도 보기드문 대규모 공사"라며 "지난해 6 월 5 일 기공식 이후 1 년 반 동안의 땅파기 공사 기간 중 높은 생산성과 안전기록을 기록하게 됐다"고 말했다.

복합용도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인 파크원은 54 층, 72 층 두 동의 오피스 타워와 6 층 대형

쇼핑몰, 국제 비즈니스호텔 등으로 구성된다. 현재 지하 7층 규모의 땅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. 앞으로 50 만㎡의 토사가 추가로 반출될 예정이다.

<저작권자 © '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' 머니투데이>

이 기사에 대한 URL

: <http://stock.moneytoday.co.kr/view/mtview.php?no=2008101821442822343&type=1>